"못살겠다" 농·어민들 전국 동시 집회

고유가·사료값 폭등 대책 촉구
출하 거부·해상 시위 투쟁 방침

고유가와 비료·사료값 폭등에 따른 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농·어민들의 집단행동이 가시화되고 있다. 농민들은 9일 전국 각지역에서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는 동시집회를 가졌으며, 어민들은 정부 부처를 방문, 고유가 대책을 촉구했다. 특히 농어민들은 이날 출하거부 투쟁과 해상시위 등 향후 로드맵까지 제시했다.

미국산 쇠고기 협상 무효과 비료·사료값 폭등에 따른 대책 등 농민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는 농민집회가 9일 광주와 전남지역 14개 시·군을 비롯, 전국 각지에서 열렸다.

해남군 농민회는 이날 오전 11시 군민광장에서 농민 3천여명 모인 가운데 결의대회를 갖고 면세유 가격 인하 및 농자재 가격 인상 등에 대한 지원을 촉구한 뒤, 가두행진을 벌였다. 순천시 농민회도 순천시청 앞에서 집회 후 정부와 지자체에 대한 항의 표시로 트랙터 20대를 반납했다.

이와 함께 장흥과 나주, 영광 등 전남 11개 시·군에서도 수백여명의 농민들이 집회을 가진 뒤 가두행진을 벌였다.

농민들은 오는 15일께 열리는 전국농민회총연맹 중앙위원에서 출하거부투쟁에 대한 입장을 정리, 8~9월께 홍보와 투쟁 참여 여부에 대한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광주시 농민회 소속 농민들도 이날 오후 광주시 광산구 송정역 광장에서 농민 생존권 보장과 미국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독자적으로 가졌다.

70여개 어민단체들로 구성된 전국어업인연대(이하 전어연) 대표들은 9일 오후 3시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박덕배 농수산식품부 차관과 만나 실질적인 고유가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전어연에는 완도선주협회와 여수연성협회도 가입돼있다.

전어연은 현재 1드럼당 22만원선인 어업용 면세유 가격은 1년전보다 배 이상 오른 것이라며 손익분기점인 드럼당 8만~1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민의 손해를 보전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광영 전어연 사무국장은 "전어연의 요구안과 현재 면세유 가격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고유가로 출어를 포기하는 어민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어연은 이날 회담 결과에 따라 17~18일 부산 남항과 인천, 제주, 포항, 완도, 여수, 군산항 등 전국 9개 항구에서 정부에 고유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해상시위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화순군 농민회 농민 300여명은 9일 오전 화순군청 앞에서 농민생존권 보장을 위한 농민집회를 갖고 쇠고기 협상 무효와 사료·비료값 폭등 대책을 촉구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국립공원내 일부 사찰
관람료 폐지 추진

정부는 국립공원 내 일부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9일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1월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뒤 지리산 천은사 등 문화재 관람료 징수를 놓고 심각한 마찰을 빚고 있는 일부 사찰의 관람료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관람료 폐지를 추진 중인 사찰은 천은사와 소백산 희방사, 작년 1월 관람료 징수를 잠정적으로 중단한 설악산 백담사, 덕유산 백련사, 안국사 등 5~6곳이다.

정부는 관람료가 폐지되면 13억원을 조계종에 지원키로 하고 예산을 확보해 둔 상태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환경부, 조계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3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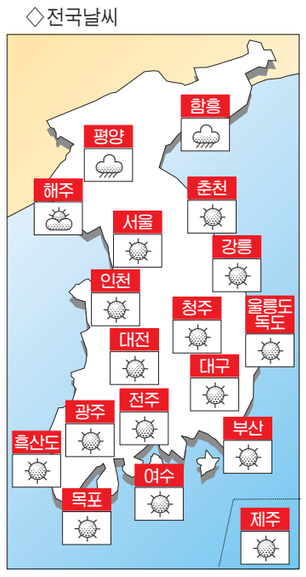
땀이 줄줄줄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으며 대체로 맑겠다.

7월 10일 (음 6월 8일) 날씨

◇전국날씨

광 주	구름 조금	24~33℃
목 포	구름 조금	22~29℃
여 수	구름 조금	23~29℃
완 도	구름 조금	22~32℃
구 례	구름 조금	23~34℃
해 남	구름 조금	22~32℃
장 흥	구름 조금	22~33℃
고 흥	구름 조금	22~33℃
순 천	구름 조금	23~35℃
영 광	구름 조금	22~31℃
진 도	구름 조금	22~32℃
전 주	구름 조금	23~32℃
남 원	구름 조금	23~33℃
흑산도	구름 조금	20~25℃



서해남부
앞바다=남서~서풍 파고 0.5~1.0m
먼바다=남서~서풍 파고 0.5~1.5m
남해서부
앞바다=남서~서풍 파고 0.5~0.5m
먼바다=남동~남서풍 파고 0.5~1.0m

목 포 밀물 07:11 19:54 썰물 00:02 12:36
여 수 밀물 01:35 14:34 썰물 07:56 20:28

▲해뜸 05:26 ▲해짐 19:49 ▲달뜸 12:50 ▲달짐 23:57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1(금)	12(토)	13(일)	14(월)	15(화)	16(수)
날 씨						
최저/최고	24/29	23/29	22/30	22/30	22/30	23/29

"공공부문 민영화 결사 저지"

광주 공공노조 회견

광주지역 공무원노조협의회 등 광주지역 공공노조는 9일 오전 광주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공공부문 민영화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공공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물, 전기, 가스, 우체국, 철도, 언론, 교육, 의료, 공공행정 등 공공부문을 사유화해 사회 공공성을 훼손시키고 물가폭등과 구조조정을 강요하고 있다"며 "공공부문에 대한 사유화는 국민의 다수인 노동자 서민들에게 대재앙"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대재앙을 막고 사회복지와 사회서비스를 확충하는 길만이 희망이 넘치는 사회라 확신한다"며 "이명박 정권의 반민중적 반사회적 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오는 12일 오후 4시 광주역 광장에서 '공공부문 사유화 저지 및 국민주권 사수를 위한 광주전남지역 공공부문 노동자 결의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날 대회에는 광주전남지역 공공부문 노동자와 공무원, 민주노총 조합원 등 4천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보이며 공공부문 사유화 저지와 광우병소 수입저지, 이명박 정권 규탄 등을 결의할 예정이다.

이들은 광주역 행사를 마친뒤 금남로까지 행진하고 오후 7시에는 광우병소 수입 저지를 위한 촛불문화제에 참석한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아파도 참아야지"

경제난에 국민들 의료비 지출 자제

고유가와 경제난 속에 국민들이 의료비 지출을 가급적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병·의원들의 진료비 수입 증가 속도가 올해 들어 크게 둔화됐고 한방 병원의 경우 진료비 수입이 아예 감소세로 돌아섰다.

9일 보건복지가족부와 유관기관 등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종합병원, 병원, 의원의 요양급여 비용 청구액은 각각 1조2천528억여원, 8천987억여원, 2조379억여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8.55%, 20.6%, 4.23% 늘어나는데 머문 것으로 평년치 증가율을 크게 밑도는 수치다.

최근 몇년간 종합병원은 매년 17% 안팎의 증가율을 보였고, 병원은 매년 30% 안팎, 의원은 7~11% 수준으로 급여비용 청구액이 증가해왔다.

한방병원의 경우 1분기에 243억5천만원을 요양급여비를 청구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오히려 2.62%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전년에 비해 무려 22.4%의 증가율을 보인 점을 감안하면 한방병원들의 심리적 타격이 적지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연합뉴스

중징계 교수 재임용 동문 반발 확산

학과장 퇴진 등 촉구에 전남대 "이중 처벌 해서야"

전남대가 최근 교수 공채과정의 담합과 논문 중복게재 의혹으로 중징계 받은 교수를 재임용한 것과 관련, 같은 학과 동문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전남대 정외과 발전위원회(위원장 장영태)는 9일 '전남대의 자정능력과 책임성, 도덕성 회복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전남대가 징계중인 교수를 재임용하는 사상 초유의 불법적 사태를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교수 3명 중 2명에 대해 경징계를 내리고, 중징계를 받은 교수를 재임용한 것은 최근 개인적 사유로 3명의 교수를 해임한 강정채 총장이 이전 처벌과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들은 ▲학과장의 퇴진 ▲중징계 교수의 재임용을 결정한 인사위원회 회의록 공개와 인사위원 명단 공개 ▲지난 2006년 1월 정외과 교수 공채과정 부정의혹에 대한 조사 등을 요구하는 한편, 청와대 등에 정외과 교수 공채비리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고 검찰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외과가 포함돼 있는 사회대 학장이 중징계 교수의 재임용을 도왔다며, 학장의 논문 중복게재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학장은 "소속 교수를 보호하는 것은 학장으로서 당연한 일"이라며, 논문 중복 게재에 대해서는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한편, 전남대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중징계(정직 3개월) 중인 사회대 정외과 A교수에 대한 재임용을 결정했다. 전남대 관계자는 "해당교수가 이미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이를 문제 삼아 재임용을 하지 않는 것은 이중 처벌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전남대, 한전 공채 합격 전국 최다

공기업 취업 두드러져

전남대학교가 공기업 등 고급 일자리 취업에 강한 면모를 나타냈다.

9일 전남대에 따르면 최근 한국전력 상반기 공채 합격자 180여명 중 전남대 출신이 16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했다. 지난해 말 토지공사 공채에서는 9명을 합격시켜 수도권 대학(10명)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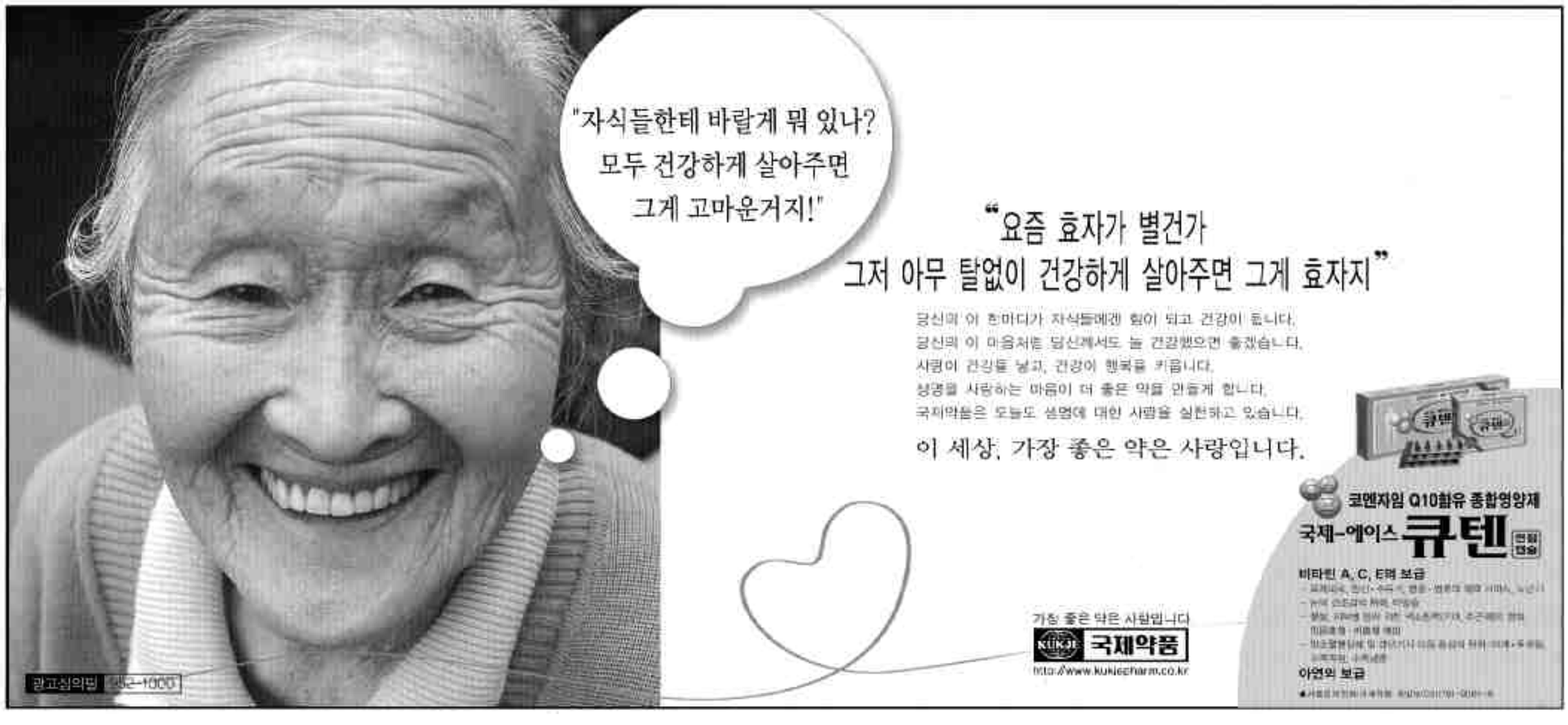
또 지난해 말 삼성생명 공채에서도 50명 중 9명을 합격시켰고, 축산물등급판정소는 8명 중 5명에 달하는 전남대 출신을 배출했다. 지난해 사법시험에서는 19명이 합격, 지방대 중 1위에 오른 바 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승용차 이용자 절반
평소처럼 차량 운행

최근 휘발유 가격이 ℓ당 2천원을 돌파했지만 승용차 이용자 절반은 평소처럼 차량을 운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통연구원은 6월 23일부터 일주일 동안 서울과 광주, 대전, 대구, 부산, 울산의 자가용 승용차 보유자 700명을 대상으로 자동차 이용 및 구입 관련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응답자의 48%는 유가 급등 이후에도 차량 이용을 전혀 줄이지 않았다고 답했고 절반 이상 차량 이용을 줄였다는 응답자는 28%에 그쳤다.

자가용 운행을 계속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6%가 편리함을 꼽았고, 34.7%는 이동시간 단축을 들어 불편한 대중교통 체계를 손질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